지역 소식통

부안군, 꽃게 금어기 불법 해루질 지도 단속 실시

부안군은 비어업인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동안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꽃게 금어기를 위반한 비어업인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해안가와 어촌계양식장,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차량을 이용해 금어기 준수 홍보방송을 전개했다. 또 어업인 단체에서도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펼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이 행복한 고창'

고창군이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인 2021년 7월15일 출산부터 적용하며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 접수

정읍시가 제27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할 '2021년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 장 조례'에 의거 매년 심사 선발해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정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수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취업 청년 재도약 돕는다

정읍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기 성료 내달 14일 2기 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에 따라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와 청년지원센터는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모집해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1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2기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 '청년 도전 지원사업'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청년지원센터 백정록 소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과 시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개인별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생활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추경예산 투입 위해

정읍시, 제2회 추경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 점검·논의

정읍시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앞두고 각종 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추경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와 '용역사업 심의 위원회', '지방 보조사업 심의 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위원회는 다음 달 정읍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기금 존속 기한 연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 공시(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50억을 투자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샘골 사랑숲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필요성과 적법성, 관련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용역사업 심의 위원회'에서는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용역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가의 장기계획과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주민의 숙원도와 수혜도, 파급효과, 재원 조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는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사업' 등 14개 부서의 54개 사업(14억원)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각각의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임시회에 상정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유언비어 근절 코로나 위기극복 힘 모아야"

부안군이 8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한 가운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행정기관이 대응해 유언비어를 근절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 5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누적확진자 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인 '부안톡톡'을 통해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민들이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 누구를 만났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돌아다닌다 등 유언비어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자가격리자가 외출을 했다는 민원이 부안군 보건소에 접수돼 당사자에게 확인 결과 유언비어로 확인되어 자가 격리자들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소문에 의해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왔다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여론몰이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지침서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민의 편안한 생태습지인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2곳의 정자에 멋진 이름이 생겼다.

생태습지 정자에 멋진 이름 새기다

고창군, 운곡정 안덕정 운곡습지 2곳 정자 현판식

전국민의 편안한 생태습지인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2곳의 정자에 멋진 이름이 생겼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운곡습지 안덕정(安德亭)과 운곡정(雲谷亭)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운곡습지 자연환경해설사 등이 모여 현판식을 열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고창군은 운곡습지 일대 탐방로 여러 곳에 쉼터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땀을 식히고, 동행자를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 애용돼 왔다.

쉼터는 전망대 4곳(호암, 백호, 안덕, 샛강)과 정자 10여곳(운곡정, 안덕정 등)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간 쉼터의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 탐방객과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위치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설사들이 뜻을 모아 우선 '운곡정(雲谷亭)'과 '안덕정(安德亭)'의 정자에 현판을 새겨 걸게 됐다.

생태공원 전경이 두루 잘 보이는 '운곡정(雲谷亭)'은 단아한 해서체로 휘호했다. '안덕정(安德亭)'은 연재 유병회 해설사가 안정되고 힘이 느껴지는 예서체로 휘호했다.

김동식 자연환경해설사는 "우리의 작은 힘이 운곡람사르습지를 보전하는데 쓰이게 되었다니 기쁘고 보람된다"며 "나머지 정자에도 이름을 붙이는 일에 힘을 보태줄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아름답게 글씨를 판각해서 멋진 현판을 기부해 주신 유병회 자연환경해설사께 감사드린다"며 "안덕정과 운곡정에서 기분 좋은 휴식을 즐긴 사람들을 통해 정자의 이름이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설하우스 병해충 예방·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폭염 이후 시설하우스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로 시설하우스에서는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의 병해와 점박이응애,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등의 해충의 밀도가 증가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야간온도가 낮아지면 시설하우스 주변의 잡초 등에서 서식하던 해충의 시설하우스 유입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출입구와 측창에는 조밀한 방충망을 설치해 미소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황색 끈끈이트랩을 내부에 달아 해충의 밀도를 관찰하고 방제해야 한다.

점박이응애와 총채벌레 등은 크기가 작아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잎을 뒤집어 확대경으로 보거나, 꽃을 흰 종이에 털어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